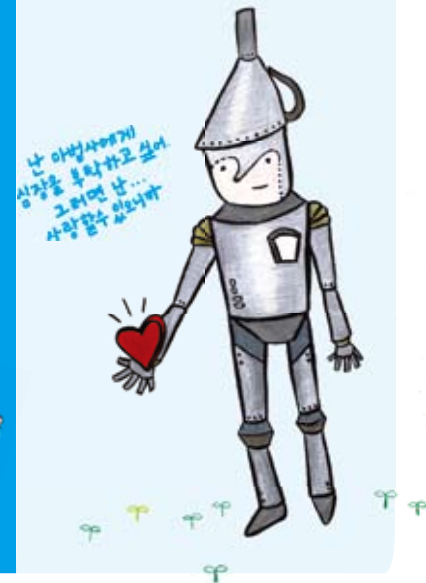




Love Yourself

2007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작품집



Love Yourself

2007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작품집

2007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은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최되었다.

Contents

6

2007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추진개요

11

표 어 당선작

23

포스터 당선작

44

공모전 참여자 전체리스트

2007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1. 추진 개요

- 주 최 : 수원시·경기도 수원교육청
- 주 관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후 원 : 경기방송·경인일보/경인플러스
- 참가대상 : 수원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심사위원 : 관련분야 교사 및 교수진으로 구성
- 공모기간 : 2007년 6월 11일 ~ 22일
- 응 모 작 : 표어 48점, 포스터 52점
- 심 사 : 2007년 6월 26일
- 심사위원 : 이영문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아주대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교수)
양훈도 경인일보/경인플러스 편집국장
홍순달 경기방송 보도국장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진료과장
임종길 권선고등학교 미술교사
전진희 수원고등학교 국어교사
- 발 표 : 2007년 7월 2일
- 당 선 작 : 표어 10점, 포스터 20점

2 주 제

- 자 . 살 . 예 . 방 / 생 . 명 . 사 . 랑
-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내용
 -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내용
 - 자살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내용

3. 작품 규격

- 표 어 : 32자 이내 자유롭게 원고지 또는 A4용지에 작성함.
- 포스터 : 4절 켄트지 (39,5X54,5cm). 포스터 칼라 또는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함.



4. 입상자 명단

표 어		포 스 터	
수원시장상	김진아 매원중 3학년 13반	수원시장상	이재원 정천중 1학년 8반
경기방송사장상	최아정 중앙기독교중 1학년 룰반	경기방송사장상	문정민 조원중 2학년 6반
경인일보사장상	유태상 매원중 3학년 7반	경인일보사장상	김관수 수원중 3학년 4반
	정보연 창용중 3학년 4반		서예원 매현중 2학년 9반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상	최소이 매현중 3학년 9반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상	서현경 고색중 1학년 8반
장려상	노운영 매현중 3학년 9반	장려상	김희주 홍천중 1학년 9반
	방호민 매원중 1학년 7반		박민정 매현중 2학년 4반
	오민석 매원중 3학년 5반		송예림 매원중 3학년 11반
	임소정 매원중 1학년 14반		안진옥 창용중 2학년 4반
	정소영 창용중 2학년 1반		한수빈 삼일중 3학년 2반
입선		입선	강태희 창용중 2학년 2반
			고예원 조원중 3학년 5반
			권연주 매원중 1학년 14반
			김민규 정천중 1학년 4반
			김선유 고색중 2학년 7반
			박나영 매현중 2학년 12반
			이가현 매원중 1학년 4반
			이미영 창용중 2학년 2반
			이주아 창용중 1학년 7반
			최수지 고색중 1학년 2반

5. 심사 후기

〈Love Yourself 2007 자살예방 표어·포스터공모전〉에는 총 100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자살예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그들 나름대로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응모작들의 수준은 중학생들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작품성이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이며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심사에 우열을 가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출품작들 대부분이 "자살예방"과 "생명사랑"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주제 적합성, 메시지 전달, 실제 활용성 등 3가지 관점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들을 선별하였다. 특히 포스터의 경우 작품제작을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 등이 돋보인 작품들이 많아 특별히 입선작품을 추가 선정하였다. 또한 포스터 이미지에 첨부한 카피(표어)가 우수한 작품들은 표어부문 당선작으로 뽑았음을 밝힌다.



6. 심사위원 심사평

- 힘들 땀 주변의 도움을 구하자, 우리의 관심과 도움으로 자살은 막을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 동 근 용인정신병원 진료과장



- 자살예방에 관한 표어·포스터 공모전은 전국 처음. 응모작 수준 높아. "자살예방"을 각인시키는 함축적 힘을 표현한 작품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양 훈 도 경인일보/경인플러스 편집국장



- 포스터 부문 매우 인상적인 작품 많아. visual art 감각이 언어적 영역보다 앞서 있어.

이 영 문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아주대 인문사회학과의학과 교수



-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힘든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나뉘어졌다. 모두 중요한 문제다. 입상작들이 널리 홍보되어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임 중 길 권선고등학교 미술교사



- "생명사랑", "자살예방"에 대한 학생들의 심도 있는 사고가 느껴져. 표어부문 내용은 좋으나 표어 특유의 리듬감 표현 부족이 아쉬워.

전 진 희 수원고등학교 국어교사



- 중학생 작품이라기엔 너무 훌륭하다. 특히 포스터 부문에 뛰어난 작품들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홍 순 달 경기방송 보도국장





난 아범사에게
심장을 복탁하고 싶어.
그러면 난...
사랑할수 있나파

표어 당선작

우리에게 희망이...

몇 초라도 다시 생각...

소중한 생명의 지킴이...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김진아 매원중학교 3학년 13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하는 지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살을 하러 올라가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 더 좋다.**



최아정 중앙기독교중학교 1학년 룰반

"무거운 마음을 이꼐고 계단을 올라가
세상을 버리기 보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번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먹는 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당신에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유태상 매원중학교 3학년 7반

"성적 때문에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내 주위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살로 모든 해결 No, 당신을 응원해요 Yes!

"걱정이나 근심을 자살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을 지켜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내자고 말하고 싶다."



정보연 창용중학교 3학년 4반

삶을 버리겠다는 절망과 좌절을 새 삶을 살겠다는 희망과 꿈으로.



최소이 매현중학교 3학년 9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처한 상황을 나쁘게만 받아들이는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처지를 좋은 쪽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쪽으로 받아들이다면 우리는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전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당신이 새출발한 새로운 출발점!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이 글을 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간절한 바람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항상 출발점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노윤영 매현중학교 3학년 9반

나의 자살 부모 절망, 몇 초라도 다시 생각!



방호민 매원중학교 1학년 7반

"자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로 인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면
그건 죽는 것보다 슬픈 일일 것이다."

너의 생명 지키는 것, 우리 행복 지키는 것!



오민석 매원중학교 3학년 5반

"자살로 내가 아는 누군가,
그 어떤 사람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야만 내가,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울한 마음의 열쇠를 열어 소중한 생명의 지킴이 되자.



임소정 매원중학교 1학년 14반

"작거나 혹은 크거나,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다.
희망이 감춰진 마음의 열쇠를 열어보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자."

자살충동 그 용기로 너의 꿈을 실현하라!



"자살을 시도하는 용기를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자기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사람까지
행복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정소영 창용중학교 2학년 1반



포스터 당선작





이재원 정천중학교 1학년 8반



"다리에서 뛰어내릴 용기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
조금 힘들더라도 작은 행복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뛰어내리는 그 순간 후회하게 될테니까."



문정민 조원중학교 2학년 6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 가족이 받게 될
커다란 슬픔은 곧 함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살아야 한다."



김관수 수원중학교 3학년 4반

"비상구란 급할 때 피신하는 희망적 출구다. 좌절을 느끼거나 외로울 때 답답한 현실의 탈출구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비상구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희망의 비상구가 될 것이다."



서예원 매현중학교 2학년 9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건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서현경 고색중학교 1학년 8반



"힘들 때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다.
그럴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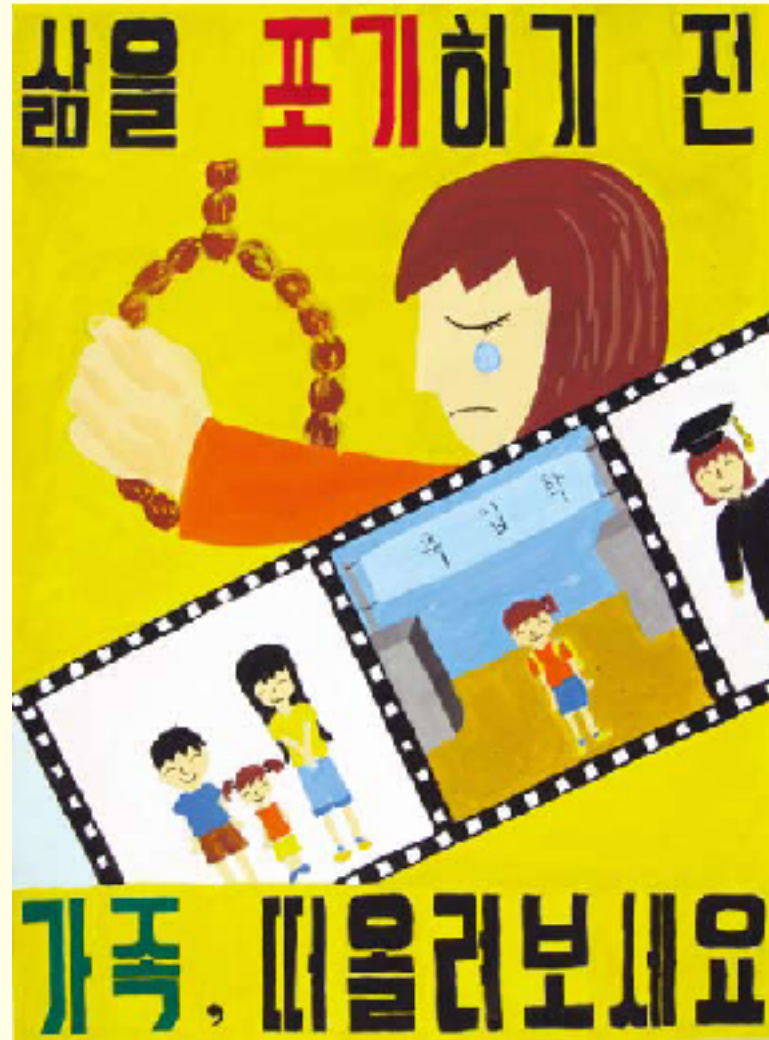


김희주 흥천중학교 1학년 9반

"힘들었던 아이가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본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본 아이가 마음을 열고 기운을 차린다는 내용을 그렸다.
희망은 바로 내 주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민정 매현중학교 2학년 4반



"삶을 포기하기 전, 가족들을 떠올려 행복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자살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송예림 매원중학교 3학년 11반

"잘못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 한번 건넨다면 아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다."



안진욱 창용중학교 2학년 4반



"한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학생은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자신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부모님과 친구들이 슬퍼할 것이라는 걸 느낀다. 한번 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함을 느끼고 자살을 포기하는 학생, 사랑과 관심이 자살을 막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한수빈 삼일중학교 3학년 2반

"잘못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 한번 건넌다면 아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다."



강태희 창용중학교 2학년 2반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만약 자살을 하게 되면 가족들의 행복은 일순간에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고예원 조원중학교 3학년 5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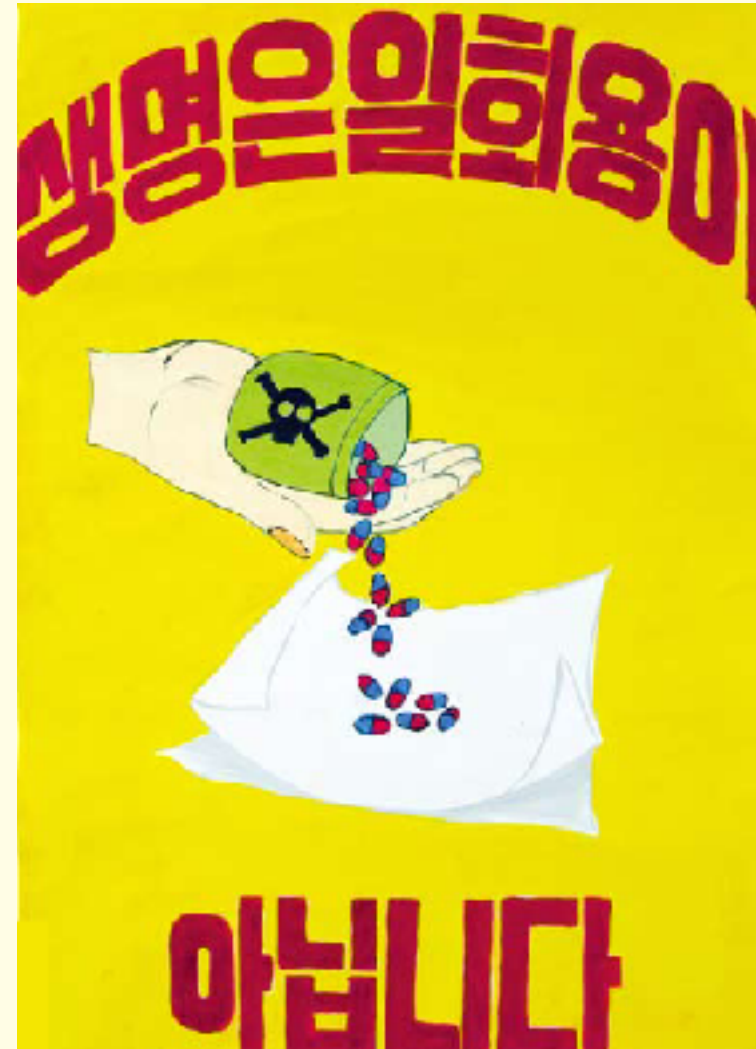
"쓰러져 가는 한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다. 따뜻한 말 한 마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생명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



권연주 매원중학교 1학년 14반



"자살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 생명의 수평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램파 스트레스 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한다."



김민규 정천중학교 1학년 4반

"생명은 일회용이 아니라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독약과도 같은 고민과 스트레스 등을 손에서 흘려버림으로써 새로운 삶을 찾아나선다는 희망을 담았다."



김선유 고색중학교 2학년 7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 그것도 자살로.
자신의 목숨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해 고통을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듯싶다."



박나영 매현중학교 2학년 12반

"우리 주위에는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도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손을 내밀어 보자.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가현 매원중학교 1학년 4반



" '자살'이라는 글자를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되는 것처럼 자살을 하려던 사람도 조금만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자기자신을 비롯해 세상에 부정적으로 보여졌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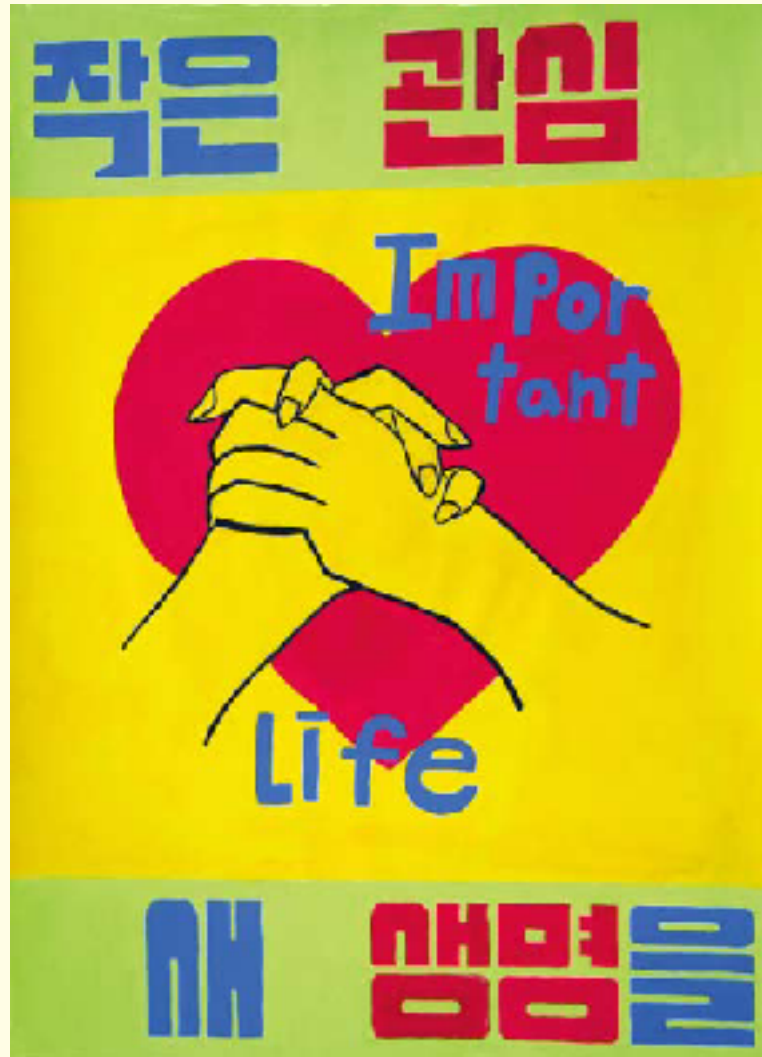
이미영 창용중학교 2학년 2반

"12시가 넘도록 포스터를 그리느라 잠도 안자고 있었다. 그런 날 지켜봐주던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거나 포기하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사람들도 힘들어서 자살을 떠올릴 때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주아 창용중학교 1학년 7반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다.
생명이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되새겼으면 좋겠다."



최수지 고색중학교 1학년 2반

" 청소년들의 자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놀라곤 한다. 아직 어린데,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함부로 던져 버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

■ Love Yourself 2007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참여자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이번 공모전에 표어와 포스터를 출품한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표어 출품자〉

강의진 창용중
고창환 매원중
구지윤 매원중
김민준 대평중
김보나 남수원중
김소진 매원중
김솔아 매원중
김수정 매현중
김영주 창용중
김지아 매원중
김진아 매원중
김한영 산남중
김희주 홍천중
남수민 정천중
노윤영 매현중
노현정 산남중
모진영 매현중
방호민 매원중
서원영 매현중
성은희 고색중

송유진 화홍중
안지훈 매원중
양예은 조원중
양지성 매현중
오민석 매원중
유수란 매원중
유혜정 매원중
윤다혜 고색중
윤은지 창용중
이상원 수원제일중
이솔이 매원중
이수민 매현중
이승훈 매원중
이용수 매원중
이은지 정천중
이재우 창용중
이하경 산남중
임소정 매원중
임정수 매현중
장지원 매원중

정소영 창용중
정혜영 매현중
최소이 매현중
최아정 중앙기독교중
최현아 정천중
함상균 산남중
허창무 고색중
황재희 창용중

〈포스터 출품자〉

강태희 창용중
고예성 매현중
고예원 조원중
권연주 매원중
김관수 수원중
김민규 정천중
김민준 대평중
김선유 고색중
김솔희 매원중
김윤진 매원중
김종주 수성중
김지아 매원중
김희석 수원중
김희주 홍천중
남미도 매원중
노현정 산남중
문정민 조원중
박나영 매현중
박민정 매현중
박선영 조원중

박영진 삼일중
박종훈 삼일중
서동현 창용중
서예원 매현중
서현경 고색중
송예림 매원중
안진옥 창용중
안태경 매원중
양인강 삼일중
연민지 고색중
유태상 매원중
유혜정 매원중
이가현 매원중
이미영 창용중
이소영 매원중
이웅재 매현중
이재원 정천중
이정선 매원중
이정은 매원중
이주아 창용중

이지은 정천중
이한솔 창용중
이현지 매원중
임소정 매원중
장현우 삼일중
정보연 창용중
정은하 고색중
조아라 매원중
조정주 매원중
최수지 고색중
한수빈 삼일중
홍은선 창용중



www.csp.or.kr

Centre for Suicide Prevention in Suwon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43-1 Tel. 031-228-3279

